메트로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www.metrobusan.co.kr

Sports p/20

기성용 "이번엔 멘유 차례"

## 쓰레기 선물하는 선진국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부자 나라 들이 납 수은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 쓰레기를 가난한 나라에 마구 버리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 전자 제품을 수출한다더니 용도를 속이고 이를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몰래 반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쓰레기는 앞으로 4년 안에 2012년 대비 33% 증가할 전망이다. 무게로는 6540만t에 달하는 데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00채 무게라고 한다. 늘어나는 전자 쓰레기만큼 재활용품으로 둔갑하는 쓰레기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개발도상국 국민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기 바쁘다. 힘없는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어렵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단어로 묶인 뒤 국제사회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 지속적으로 구호물자를 보내고 질병퇴치 사업에 앞장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겉으로만 돕는 건가? 눈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식량과 담요를 선물로 주면서 등 뒤에서는 재활용품으로 포장된 독극물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으니 말이다.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 수은 중독에 걸린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하다. 요즘 '두 얼굴의 천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타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 준비에 한창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가을 쓰레기 선물은 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누리 대선 1주년 기념식** 황우여(왼쪽 넷째) 새누리당 대표, 김용준 (오른쪽 넷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대선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 1주년 기념식에서 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다녀온 G20 대표단** 이브라힘 카니지 터키 재무차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서울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G20 국제 금융기구 대표단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기업을 둘러봤다. /연합뉴스

# 불신만 더 키운 '셀프수사'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썼지만 윗선 지시 없어…대선 개입 아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0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치 관련글은 1만5000여 건이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100여 건이었다.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은 북한의 전전 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특히 이 단장은 군이 조사를 착수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이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댓글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전 현직 사령관도 정치 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선에 개입한 것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상명하복과 일일 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민준 기자 mk.m@metroseoul.co.kr

## 경찰청,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병무청·통계청 서울시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실시된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53개 공공기관을 놓고 민원인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사·단속·규제기관은 병무청이, 일반 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충북 보은군, 서울 마포구,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기관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였다. /조현정기자 jhj@

# 철도노조 대규모 상경집회

### 경찰은 노조지도부 첫 체포

철도노조 파업 11일째인 19일 코레일이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최후통첩 성격의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노조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극한의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전날 밤 법원은 지역 노조 실무 간부급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부산과 대전, 전남 순천, 경북 영주에 있는 철도노조 지역본부 사무실 4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검거 활동은 본격화됐고, 경북 영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전국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의 윤모(47) 차량지부장을 체포했다.

철도노조의 면허 발부 연기 요청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20일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의 면허를 발부할 방침이다. 면허가 일단 발급되면 수서발 KTX 법인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노사 간의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경찰이 19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검사장급 이상 인사

●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임명됐고, 대전고검장은 김희관 부산지검 검사장, 광주고검장은 조성욱 서울서부지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 화성 매향리 미군사격장 60년만에 주민품으로

●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60년 가까이 어업 활동이 제한됐던 화성 매향리 사격장 갯벌이 내년에 주민 품으로 되돌아간다.

경기도는 매향리 농섬 주변에 남아있는 포탄과 탄피 등 사격 잔재물을 수거해 제거하는 환경정화사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노원구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6일까지 내년 제1기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3월이며 '어섬교실', '주말 학교 강좌' 등 총 92개 강좌를 진행한다. 노원평생교육포털 홈페이지(ll.nowon.kr)에서 선착순 수강 신청을 받는다.

### 구로구 사회적기업 상품판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로4동 자치회관에 홍보 등지를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구로구는 특화 상품 판매와 홍보활동 등을 통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금천구 '에너지 절약 콘서트'

서울 금천구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청기누설'이 20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한마당 콘서트를 개최한다.

청기누설 영상동아리가 직접 제작한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댄스, 프리허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 내년 대학 입시부터 수시모집 인원 축소

### 학생부 전형 비중 늘어날 듯…정시는 수능 위주로 재편

201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고 전형은 간소화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은 올해보다 높아지고,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대학 수와 모집 인원은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대학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을 심의·의결해 19일 발표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7만9107명으로 올해보다 407명 감소하고, 수시로 24만3333명을 뽑아 올해보다 7887명이 줄어든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수시 비율이 올해 66.2%에서 64.2%로 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200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54.6%인 20만6764명을 뽑아 올해보다 비중이 10.1%포인트 증가한다. 수시에서 20만4860명을,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11만8905명을 각각 선발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재편됐다.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은 내년 13개교로 대폭 감소했다. 정시에서 유일하게 논술시험을 봤던 서울대는 내년에 논술을 폐지했다.

수준별 수능이 영어영역은 폐지된 가운데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을 둘 다 반영하는 대학의 수가 늘었다.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을 하는 대학은 66개교(5074명 선발)로 올해보다 7개교 늘어난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 파업 현대차 하청노조에 사상최대 90억 배상판결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9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공장 점거와 관련해 회사가 제기한 7건의 손배소 중 이날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하청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은 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손배소 사상 최대 배상액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 "서울역 고가 붕괴위험 크다"

### 감사원 "주요부위 손상 심각" 서울시 "철거방안 조속 마련"

서울역 고가도로가 노후화로 인해 주요 부위가 손상돼 붕괴 위험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두겁대(콘크리트 기둥과 상판 사이의 가로재)와 바닥판을 포함한 주요 부위가 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가차도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2006년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이 고가도로를 2010년까지 철거·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고가도로 교체에 따른 비용을 역세권 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 시점을 2015년으로 다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꾸준히 보수해왔으며 올해도 5억원을 들여 정밀 점검과 보수공사를 했다"며 "철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붕괴 위험이 제기된 서울역 고가도로 모습

/조현정기자 [illegible]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美 소설가 스타인벡 사망**

1968년 12월 20일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 66세로 작고했다. 62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그는 가장 예민이 어려워 고학으로 진학한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잇다가 문필가가 됐다. 그 탓에 그의 작품은 강렬한 사회의식과 휴머니즘으로 넘친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의 구성을 본뜬 '분노의 포도'는 대자본의 횡포에 착취당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분노와 재생의 의지를 그린 40년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 제목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 배경인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 소설은 불태워졌고 금서로 지정됐으며, 스타인벡은 요시찰 대상 작가가 됐다.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용·횟수 앞으로도 확대

## "아이 갖기 노력 박수 받을 일이죠"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죠."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경미(47)씨. 시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에 시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가정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 180만원씩(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0만원) 총 3회, 인공수정은 1회부터 50만원씩 총 4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로 달려갔어요." 그녀는 3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번 시도가 아깝기도 했고 여기서 끝내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았어요." 결국 이씨는 4번째 시술을 통해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매일 희망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요즘 아이가 커가는 맛에 산다며 밝게 웃었다. "아직도 많은 난임 부부들이 임신하기 위해 시술을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씨는 국가에서 주는 도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이를 갖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둘째를 갖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이를 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은데 둘째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난임 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비용, 횟수 등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서 명예기자 기자

※이동서 기자는 보건복지부 대표 블로그(blog.daum.net/mohwpr)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고비 넘겼다

### 미래부 등 합동간담회 이후 기장군의회 긍정 선회…내년 1분기 착공 전망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의 잡안싸움 양상으로 비춰져 내년 1분기 착공 어려움이 예상되던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대량생산과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수급이 안정되고 중성자를 이용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방사선 연구를 할 수 있다.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벨트 구축의 핵심 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지난달 절차상 하자를 내세운 기장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주관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와 부산시, 원자력연구원 등은 기장군의회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3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흥복 기장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들은 연구로 건설과 관련된 사전 절차 불이행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상안읍 일대 하수종말처리장 5년 내 조기 완공 및 그린벨트 해제 ▲방사선 관련 기업의 유치 확대와 본사 이전 ▲방사선동위원소 생산·판매 법인 설립 시 기장군 본사 입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 ▲원자로 안전대책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의 정책적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기장군의회는 관련 기관 간 간담회 개최 후 요구사항 상당 부분이

수출용 신형연구로 조감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 개회되는 기장군 임시회에서 협약(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장군이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도 국가 시책과 지역 발전의 상생 협력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부산시와 군의회 간의 중재에 적극 나서 이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군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기장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사업 부지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사선 의·과학산업벨트의 핵심 시설인 수출용 연구로 사업의 2014년 상반기 공사 착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2016년 말 완공과 시운전을 거쳐 2017년 말에는 연구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근 기자 hk@metroseoul.co.kr

## 폭력 삼진아웃!

### 339명 재판 49명 구속

김모(45 노동)씨는 술에 취해 기계에 들어가 폭력을 휘둘렀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단순 상해사건이지만 김씨가 최근 3년 동안 5차례 폭력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이모(63 무직)씨는 부인과 집주인의 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부인을 때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에 의해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폭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폭력사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강력범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39명(구속 49명)에 대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 징역형을 구형하는 '구공판'을 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 전담검사가 가정폭력을 저지른 181명을 직접 면담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6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선박인테리어 기업 BIP 고성군에 100억대 투자

국내 대표 선박 인테리어 기업 BN그룹 BIP(주)는 최근 경남 고성군과 1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BIP(주) 유영호 대표이사와 이학렬 고성군수 등은 향후 투자 계획을 확인하고 투자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앞으로 상호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IP(주)는 2016년까지 공장부지 및 생산설비 등 최소 100억원 이상을 고성군에 투자하고 신규 선박기자재 생산공장 설립 및 고성군 거주 인력 일정 비율 채용 등을 이행해 해당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장학근 기자

BIP(주) 유영호(왼쪽) 대표이사와 이학렬 고성군수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1m짜리 대구…겨우내 먹어도 되겠네 19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고객들이 길이 1m 크기의 대구를 살펴보고 있다. 겨울철 제철인 대구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롯데백화점 제공

## 에어부산 "스탬프 모으면 항공권보너스"

### 신개념 마일리지 '플라이앤스탬프' 제도 첫선

에어부산이 기존 항공사 마일리지제도와 차별화된 회원 우대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제 '플라이&스탬프'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노선별로 탑승 횟수에 따라 정해진 개수의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또 스탬프를 일정 수 모으면 기준에 따라 국내·국제선 보너스항공권으로 교환해 무료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어부산의 플라이&스탬프는 타사의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탑승을 통한 적립뿐 아니라 구매 및 양도를 통한 적립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세부나 사이판 등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탑승으로 스탬프 10개가 적립된다. 친구에게 5개를 양도받고 모자란 5개를 구매하면 국내선 전 노선 편도 이용에 필요한 스탬프 20개가 모여 보너스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너스항공권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스탬프 적립·사용이 가능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애용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프로그램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려 에어부산을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근 기자

## 신세계 사이먼, 부산 작은도서관에 3억 지원

부산 기장군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오픈한 신세계 사이먼이 부산지역 216개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부산시에 전달한다.

신세계 사이먼은 20일 오후 부산시를 방문해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3억원의 도서 구입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성금은 부산문화재단에 전달돼 부산 관내의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사용된다. 구입 도서는 지역 출판사의 우수 도서, 문화체육부 추천 우수 도서, 시민이 선정한 원북원 부산 후보 도서, 사서 및 교사들이 추천한 우수 도서 등 2만여 권에 달한다.

강명구 신세계 사이먼 대표는 "부산의 향토 서점에서 구매한 책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뜻 깊은 사업에 힘을 보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산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김장 담그기' 행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이재현)는 지난 16일 회원 및 직원 32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들이 담근 김치 10kg 100박스는 불우 보훈 가족과 지역 결연 대상자에게 전달됐다.

# 부산아쿠아리움 웹·앱 '최고'

## 웹어워드 전시관분야 최우수·스마트앱어워드 교육분야 대상 수상

부산아쿠아리움은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웹어워드 코리아와 스마트앱어워드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대상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웹어워드 코리아와 스마트앱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평가 심사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와 스마트 앱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부산아쿠아리움을 찾은 어린이 관람객이 아쿠아스쿨 앱을 통해 수족관 속 물고기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부산아쿠아리움 제공

우선 지난 7월 리뉴얼한 부산아쿠아리움 웹사이트가 2013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문화 전시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독창적인 사이트 구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반응형 웹'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산아쿠아리움 내 7m 깊이의 산호수조에 전시된 해양생물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라이브 캠' 서비스는 타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선보인 학습지 앱인 부산아쿠아스쿨 앱 또한 2013 스마트앱어워드의 학습교육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는 아쿠아리움에서 물고기를 직접 보면서 관련 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해양생물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아쿠아리움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쿠아리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은기자 hk@metroseoul.co.kr

# '신의 물방울' 이렇게 싸도 돼?

## 롯데호텔부산 와인샵 오픈 기념 최대 70% 할인

롯데호텔부산 델리카한스에서는 1년 내내 호텔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와인샵을 오픈했다. 오픈 기념 및 연말 다양한 행사 준비를 위해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와인 장터는 그 어느때 보다 더욱 뜨겁고 특별하게 준비됐다.

델리카한스 와인샵

와인샵 오픈을 기념해 세계 200여 종의 와인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와인 장터에는 1+1 와인 판매, 한국인이 선호하는 테마 와인, 와인 균일가 판매와 스파클링 와인 1+1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프랑스의 도멘 콩트리우스 바케라스 '카라그' '트골로' 도메인 드 라 솔리튜드 샤또네프 뒤 빠프 트레디션 블랑 뀌베 콘스탄자 등의 한정판 프랑스 와인을 만날 수 있으며, 스페인·이탈리아·미국·칠레·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와인을 준비해 뒀다. 특히 미국의 글로리아 페레 소노마 브뤼, 글로리아 페레 바 데비 등의 스파클링 와인이 한정으로 소개되며 아르헨티나의 트라피체 와인은 1+1으로 만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칠레의 1865 까베네 쇼비뇽은 2만 원대부터, 1865 까르미네르와 1865 쉬라즈는 3만원대로 만날 수 있다. 장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문의 및 예약: 051)810-6490

# 'ITU 전권회의' 대학생 서포터스 출범

부산시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20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서포터스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발대식은 전권회의 소개(동영상 포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 특강,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SNS 예절 특강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요령과 전권회의와 관련된 각종 행사 수행 시 필요한 소양 교육 등으로 참가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서포터스는 온라인 활동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ITU 전권회의의 역사와 연혁, 다양한 스토리 등 ITU 전권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시민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행사 종료 시까지 전개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는 온라인상의 활동 지원과 오프라인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등 대학생 서포터스의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책임과 긍지를 갖고 활동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해나

**인제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영광의 얼굴들** 인제대학교(총장 이원로)는 지난 17일 오후 인당관 12층 총장실에서 '인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 market index <전일>

| 코스피 | 코스닥 |
| --- | --- |
| 1975.65 (+1.02) | 484.17 (-1.48) |

| 금리 | 환율 |
| --- | --- |
| 2.89 (-0.01) | 1058.50 (+6.00) |

### 뉴스&뉴스

**와! 통큰 블록 무려 720조각**
롯데마트가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점 토이저러스에서 완구업체 '옥스포드'와 공동 기획한 '통큰 블록'을 무려했대 720조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지수 의·식 가중치 상향**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식료품·의류 등 품목은 높이고, 주류·담배·교육 등 품목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자 2012년 가계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임차료 증가 등에 따라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부문 가중치도 169.7에서 173.0으로 높아졌다. /김민지기자

**노인가구 절반 '상대적 빈곤'**

● 노인 가구 절반가량이 상대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노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46.0%에서 2012년 49.3%로 3.3%포인트나 올랐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에 육박하며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지희기자

**11월 체크카드 사용액 최고**

●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 여신금융협회가 분석한 11월 카드 승인 실적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8조4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증가했다. 지난 8월(22.1%)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반면 신용카드의 경우 38조1200억원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11월 전체 카드 사용 금액은 총 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늘었다. /송현승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소공로 271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김 공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지국 김 우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 자 센 터 02)721-9800
[illegible]

# 출구전략 시동…불확실성 해소

**버냉키 美FOMC 회의서 "월 100억달러씩 테이퍼링"**
**이미 시장 반영된 악재…단기 충격 이후 회복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8일(현지시간) 출구전략 시동을 걸었다. 연초부터 '1년 가까이 조만간 실행될 것'이란 가능성에 글로벌 증시를 흔들어온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드디어 가시화됐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 통화정책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내년 1월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버냉키 의장으로서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검토할 것"이라던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연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채권을 매입하던 3차 양적완화 프로그램 규모를 월 750억달러로 줄이게 됐다. 갑작스러운 매입 축소로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연준의 발표에 각국 증시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국내 증시도 사흘째 오르며 큰 충격 없이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예고된 악재였으므로 이번 발표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재 현대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아주 공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축소 규모가 컸던 만큼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테이퍼링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주식을 사는 게 맞고 내년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선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시점에서 증시가 한 차례 출렁였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홍 신영증권 연구원은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지만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내년 1분기 중반까지 강세장이 예상된다"며 "3월 이후 매파 성향의 FOMC 위원이 등장하면 지금보다 강한 수준의 출구전략이 논의되면서 시장의 부담이 커지다가 하반기에 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증시에서 테이퍼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은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자동차 부문으로 관측됐다. 반면 신흥국에 많이 수출하는 철강 업종 등은 우려가 불거질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국내 주택 매매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대체로 2015년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준이 FOMC 직후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 정책 결정자 17명 중 12명이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2015년을 꼽았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KOSPI 1,975.65 ▲1.02 (0.05%)

**"테이퍼링 호재? 악재?" 코스피도 엇갈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에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19일 오후 하락세로 반전하며 전날보다 1.02포인트(0.05%) 오른 1975.65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58.5원으로 6원 올랐다. /연합뉴스

## IT·차 '맑음' 건설 '흐림'

**美출구' 국내산업 전망**

미국이 본격적으로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국내 산업계엔 빛과 그늘이 한꺼번에 드리울 전망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전자·자동차 업종은 기대가 높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경기 회복'이란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금 검색으로 해외 경쟁사들의 활기가 떨어질 때 한국의 전자·자동차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운·항공업계도 물동량과 여행객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주택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중동이 유가 하락으로 발주 물량을 줄일 가능성도 높다.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박사는 "양적완화 축소가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우리로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신흥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수출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급격히 축소되던 미국의 성장 요인이 전 세계 경기에 파급되지 않고 오히려 신흥국의 경기 위축을 불러와 모두 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다. 미국 자금 이탈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환율·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국정기자 [illegible]

## 한은 내년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되면서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 하한선을 밑도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업이나 국민이 혹시 일본 등 과거의 다른 나라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은 없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11월 물가 상승률이 0.9%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1.8%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지가 2.9%로 높다. 여러 정책 효과 등 제외하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한국은행이 내년 하반기에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2014년 경기 회복의 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원화 강세가 통화정책 당국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내수경기 회복세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내년 말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은지기자 [illegible]

# 강남 '최후의 노른자' 반짝

## 문정지구 내 복합단지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먼저 분양 스타트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원스톱 복합단지 '엠스테이트(MSTATE)'가 본격 조성된다.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분양을 계기로 개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문정지구의 경우 강남권 마지막 금싸라기 블록으로 꼽히는 데다 지난달 인근에서 공급된 '파인하바오 푸르지오'가 높은 청약률과 계약률을 기록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도 하기 전 벌써 1만5000여 건의 사전 구매 의향서가 접수됐을 정도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37㎡ 거실

**◆공급 과잉? 수요가 더 많아**

엠스테이트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단지다. 오피스텔,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17층 1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 ▲26~29㎡ 585실 ▲32~37㎡ 120실 ▲53㎡ 28실 등 총 733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으로 '한화 오벨리스크', '푸르지오 시티', '송파 아이파크',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와 같은 대단지 오피스텔이 이미 입주했거나 분양된 상태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뒷받침된다.

문정지구 내 법조단지의 미래형 업무단지 종사자를 비롯해 특히 엠스테이트의 경우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또 주변으로 가든파이브, 활성화된 지 동남권 물류단지,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 가락시장 등도 위치했다.

**◆3.3㎡당 평균 분양가 1000만원대**

오피스텔 내부는 세련된 수납 아이템을 적용,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회전식 테이블을 포함해 도어 부착형 이동 선반, 슬라이딩 연동 도어 등을 도입해 작은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특화된 커뮤니티공간도 제공한다. 오픈형 업무공간, 카페형 도서관, 멀티유즈공간,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시설, 레크리에이션 미디어 조리공간 등이 마련돼 입주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00만원대다. 20일 모델하우스 오픈 후 23~24일 청약 접수, 26~27일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2번지에 마련돼 있다. 2016년 9월 준공 예정.

/기선욱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상품권 12년 만에 새 디자인 1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새 상품권 출시를 기념해 지상품권 1000억원으로 만든 '1000이 끼지 에 없이 새로 나온 10만·30만·50만원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1조5000억 적자' 지방공기업들 연봉 퍼주기

### 서울메트로·도시철도 등 무려 20% 넘게 인상 "비난"

지난해 무려 1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지방 공기업들이 기관장과 직원 연봉을 오히려 20% 이상 올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 연봉 1위는 서울메트로(1억5000만원)다. 지난해 17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기관장 연봉은 무려 26%나 인상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1988억원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장 연봉도 전년에 비해 20% 오른 1억40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지방 공기업 중 가장 많은 5354억원의 적자를 낸 SH공사 역시 기관장 연봉이 지방 공기업 중 상위 9위로 1억2000만원이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77억원 적자를 기록한 부산교통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에 비해 25%나 오른 6400만원으로 지방 공기업 중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적자가 난 것은 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지하철 요금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으로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경영평가에서 각각 다와 나 등급을 받아 기관장 연봉 인상에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국명기자 [illegible]

# 지름신 막는 '가계부의 신'

**짠순이 경제학**

연말이 되면 숨 한 쉬 쓴 카드 고지서를 보며 놀린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 번의 지름신이 강림할 때마다 남는 건 늘 후회와 무거운 경제적 부담뿐이다. '내년엔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로 '가계부의 신'에 도전하자.

우선 자신에게 맞는 가계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 인터넷 가계부가 인기지만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손으로 쓰는 가계부가 낫다는 사람이 많다.

가계부 기입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적는 것. 매달 상환해야 할 대출금, 명절, 부모님 생신, 자동차세 등 월별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내역은 연초에 미리 적어둔다. 신용카드 대금과 각종 공과금 결제일도 새 가계부에 표시해 놓는다.

특히 계속 사게 되는 물품은 가격과 함께 구입한 곳을 적어 둔다. 할인을 받았거나 사은품을 받았다면 이때 생기는 이익분을 다른 색으로 써 둔다. 또 충동구매나 낭비한 금액은 꼭 가계부에 체크해야 한다. 만약 버스를 타도 되는 구간에서 택시를 탔다면 옆에 간단하게 메모해두고 아낄 수 있었던 금액을 적어둔다. 다음에 만날 지름신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매달 연말에 날짜를 정해놓고 결산을 해보자. 결산 날에는 지출을 분야별로 계산한다. 적금, 보험, 의류비, 식비, 문화생활비, 통신비 등 분야별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어느 분야에서 돈을 많이 썼고, 저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김현지기자 [illegible]

# 산업계,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연기 요청

산업계가 정부가 2020년까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19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13억t으로 추정해 배출전망치의 30%에 이르는 2.43억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감축 목표치가 변화된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 ksat@

## 삼성·LG '105인치 곡면 UHD TV' CES서 맞대결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 가전을 앞에는 삼성전자(위)와 LG전자가 '105형 커브드 UHD TV'로 또 한판 붙는다. 양사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4 에서 '105형 커브드 UHD TV'를 나란히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가 차세대 TV 시장의 주도권 다툼에서 앞설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웅기자 

(1면에서 계속)

# 국민차 아반떼 역시나 1위

올해의 베스트셀링카 순위

### 수입차는 BMW 520d '최다' 독일산·디젤차 강세 보여

현대차 아반떼 BMW 520d

올해 가장 인기를 누린 국산차는 아반떼, 수입차는 BMW 520d로 집계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는 현대 아반떼(8만6102대)가 차지했으며 이어서 기아 모닝, 현대 쏘나타, 현대 그랜저, 현대 싼타페, 기아 K5가 2~6위를 차지했다. 올해 국산차는 싼타페(2.4%포인트)와 그랜저(0.4%포인트)만 판매가 늘었고 나머지 판매 상위권 모델들은 전년 대비 판매가 감소했다. 특히 기아 K5는 21%포인트나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1월까지 가장 인기를 누린 수입차는 BMW 520d(7904대)였다. 그 뒤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메르세데스 벤츠 E300, 메르세데스 벤츠 E220 CDI,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아우디 A6 3.0 TDI, 폭스바겐 골프 2.0 TDI, 토요타 캠리, 아우디 A6 2.0 TDI, BMW 320d가 2~10위를 차지했다. 10위 안에 폭스바겐 3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각각 2개, 아우디 2개 모델이 포함됐고, 토요타 캠리가 일본차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또한 10개 모델 중 디젤차가 8대를 차지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차·디젤차 강세 추세를 보여줬다.

국산차 업계는 수입차의 공세에 맞서 새로운 모델들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가 아반떼 디젤을 투입한 데 이어 기아차가 최근 K3 디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기아차는 K7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서 연비 좋은 수입차들과 맞대결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르노삼성은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한 QM3 디젤을 내년 3월 공식 론칭하고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정용채기자 ferrari59@metroseoul.co.kr

##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3만 돌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알뜰폰(MVNO)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3만 명을 돌파했다.

1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알뜰폰은 지난 3일 가입자 2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16일 현재 3만1197명을 기록했다.

우체국에서 지난 9월 27일 알뜰폰을 수탁 판매하기 시작한 후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영업일수 기준으로 17일 걸렸고(10월 23일), 추가로 1만 명을 넘기는데 27일 소요됐다.

하지만 또다시 13일 만에 추가 1만 명 가입자를 유치해 최근 우체국 알뜰폰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월 기본료 1000원' 요금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우본은 지난 9일부터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월 기본료 1000원 요금제'를 비롯, 우체국 알뜰폰 13종 요금제를 기존보다 저렴하게 개편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 하루 1시간34분 '모바일인터넷 접속'

집에서도 PC를 켜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인이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3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9일 발표한 '2013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인터넷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12.3회 인터넷에 접속해 총 1시간34분을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은 스마트폰(95.5%)을 사용했고 접속 방법은 와이파이(WiFi), LTE, 이동통신망(3G) 순이었다.

접속 장소는 가정(자택)이 93.7%로 가장 높았다. '이동 중인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6.6%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이용 목적은 뉴스 등 자료 및 정보 습득(6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나 SNS 등 커뮤니케이션'(64.6%), 음악·동영상 감상 등 여가 활동(91.3%) 순이었다. /박성훈기자 zen@

## 내년 수입차 시장 10% 성장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2014년 수입차 신규 등록을 2013년보다 약 10% 성장한 17만4000대로 전망했다. 협회는 각 브랜드의 다양한 신차 및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젊은 구매층과 다양한 모델이 수입차 시장을 견인하면서 올해 수입차 시장이 전년 대비 약 20% 성장한 15만5600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수입차 시장은 엔화 강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유럽산 모델의 무관세 등이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의 가계부채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은 수입차 성장의 견제요인으로 작용해 2014년 수입차 신규 등록은 2013년 성장률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수입차 시장은 20~30대의 젊은 소비층 증가, 2000cc 이하 중소형차급의 성장, 개인 구매고객의 증가 등 수입차 대중화를 가능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수입차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채기자

## 허브디스크 장착형 스노체인 간편

### 휠 사이즈 큰 요즘 차들엔 현대모비스 '뉴 그레이트X'

겨울철 운전자의 필수품 1위는 스노체인. 어떤 제품을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사슬체인 타입, 허브 디스크 타입, 패브릭(직물형) 타입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 운전 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를 보면 이전에 비해 휠 사이즈가 1~2인치 이상 커졌고 크롬 등의 마감 처리로 점점 고급화되는 추세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순정 휠 사이즈가 16인치에서 17인치, 대형차는 17인치에서 19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고급 수입 스포츠카는 기본 20인치 이상이다. 휠이 커지면 바퀴를 덮어주는 휠판 부위인 펜더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커진 휠과 좁아진 펜더 공간은 바퀴 안쪽부터 채워 장착하는 일반 스노체인 사용을 힘들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안이 바로 허브 디스크 장착 타입이다.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뉴 그레이트 X' 프리미엄 스노체인은 차량의 휠에 허브 디스크를 미리 장착해두고, 필요 시마다 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진 패드를 끼워 사용하는 원터치 방식으로 편리성을 자랑한다. 여성 운전자도 10초 만에 장착이 가능한 설계에 강력하고 긴 수명의 소재로 제작됐다. 가격은 25만~40만원 수준으로 국산 및 수입 차 등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돼 있다. /이드해기자

## 성과급 모아 213명 신용구제

### 한국장학재단 임직원들 3900만원으로 선행

한국장학재단이 나눔봉사 허브 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소액채무 때문에 신용유의자가 된 213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조성 금액은 약 3900만원이며 이를 통해 213명이 신용유의자의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장학재단은 내년 6월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금 일부를 기부해 신용유의자를 추가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특히 곽병선 이사장은 기관장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50%를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했다. 경영 효율화에도 적극 앞장서기 위해 임원 전용 차량을 모두 소나타로 바꾸었으며,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50% 감액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행사 간소화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내년 1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재학생 및 대학 입학 예정자라면 누구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 자율 많은 연말 '다이렉트론'

중요 지출 계획을 앞둔 연말에는 믿을 수 있는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을 추천한다. 가장 안전함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무서류·무방문으로 30분 내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용등급 영향 없이 최고 5000만원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으로 보다 수월하게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다. 문의 1588-5330

# "약값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 6개 제약단체 공동성명 "업계 역성장 초래"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에 올인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 6개 단체는 지난 19일 제약협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허위 청구는 하지 않고 실제 구입 가격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당성도 없는 제도이자 시행될 경우 보험 의약품 시장의 극심한 왜곡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 6개 단체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정부의 강압적 일괄 약가 인하 조치와 기등재 목록 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000억원대의 약가 손실이 발생해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을 막고 있다. 2010년에도 수많은 문제를 양산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약업계는 미래를 위한 R&D 투자 및 설비 투자, 해외 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소통과 협의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 내 가능하다. 제도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뉴스 & 뉴스

**난치성 환아 돕는 박스터**

●박스터가 희귀난치성 환아 치료 지원을 위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직원 성금 및 헌혈증을 기부했다. 성금은 지난 10월 '박스터 자원봉사의 날' 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됐으며 헌혈증 역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모아졌다. 박스터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봉사를 위한 날로 정해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 '저금통' 기부**

●한국먼디파마가 최근 '희망저금통'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희망저금통은 직원 참여형 자선 기금 모금 프로그램으로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5월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희망저금통을 배포했다. 회사는 직원들이 모은 희망저금통 모금액과 함께 모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출연해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한국소아암재단에 자선 기금을 전달했다.

**광화문광장 뜬 '독립우루사' 곰슬맨** 대웅제약 '독립우루사' 광고 모델인 '곰슬맨'이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깜짝 등장했다. 곰슬맨은 길거리의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대웅제약은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월 1회 시민들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힐링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곰슬맨 등장 장소는 우루사 공식 페이스북에 사전 공지된다. /황재용기자

# 엄마가 발라주던 '빨간약' 성분 살균효과 커 여성세정제로도

### 시크릿 노트

아이가 넘어지거나 손을 베이는 등 상처가 났을 때 엄마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 그렇다. 누구나 다 아는 '빨간약'이다.

이런 빨간약의 실제 명칭은 베타딘(BETADINE)이다. 하지만 베타딘이라는 실제 약의 명칭보다 빨간약이라는 애칭이 더 친근하다. 황갈색 빛의 고유한 색깔 때문인데 이 색은 베타딘의 주요 성분인 '포비돈-요오드'의 황갈색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독약을 대표하는 이 빨간약은 세균, 바이러스 등 대부분의 병원성 물질에 의한 상처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마른 후에도 소독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상처나 수술 등의 소독약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있다. 베타딘의 살균 효과가 상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 포비돈-요오드는 주요 병원균에 효과를 나타내며 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 진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지닌 성분이다. 칸디다균이나 트리코모나스와 연관된 질염 원인균에 대해서도 살균 효과가 뛰어난 것. 더욱이 이 성분은 미생물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지 않아 재발이 잦은 질염 치료에도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먼디파마의 여성 세정제인 지노베타딘 역시 이러한 효능과 효과를 지닌 포비돈-요오드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름 안에도 베타딘이 들어가 있다. 물론 그 색도 황갈색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효과 때문인지, 빨간약 덕분인지 지노베타딘은 여성 세정제 중 약국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IMS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는 56%의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더욱이 일반 드러그스토어나 로드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장품 세정제가 세정 때 조절이 맞춰진 것과 달리 지노베타딘은 질염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질 내 정상 산도를 유지시켜 건강한 질 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베타딘의 살균 효과 때문이다. 이런 효과와 인기로 최근에는 보다 간편한 사용을 위해 지노베타딘 30㎖ 미니 사이즈가 출시되기도 했다. 살균 효과만큼 광범위한 베타딘의 다른 비밀도 궁금해진다.

/황재용기자

# 한미약품 역류성 식도치료제 美 진출

## 넥시움의 개량신약 에소메졸 현지 판매 시작

한미약품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사진)이 개량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한미약품은 미국 파트너사인 암닐(Amneal Pharmaceuticals)이 지난 18일부터 미국의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 3곳에 에소메졸을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소메졸은 미국 내 처방 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미국에서만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의 개량 신약이다. 한미약품은 넥시움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벌인 2년여간의 특허 소송 끝에 올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으며 넥시움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는 내년 5월까지 단독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암닐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 경쟁업체 진입이 예상되는 넥시움 특허 만료 이전까지 에소메졸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두는 최초의 국산 의약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소메졸은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북미 진출을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던 '콜럼버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지에서는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튬(Esomeprazole Strontium)'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된다.

/황재용기자

## '메이플스토리' 체험공간 양재 aT센터에 오늘 개관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체험 공간을 열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체험전 '플레이 메이플스토리'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일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약 3개월 동안 열리는 이 체험전은 게임 내에 등장하는 항구, 숲, 암벽, 마을 등을 소재로 했으며 리스항구, 루디브리엄 등 다섯 개의 메인 스테이지와 메이플 빌리지, 몬스터파크 등 다채로운 서브 스테이지로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은 체험 공간에서 밧줄 그물, 암벽 타기 등의 단계별 임무를 수행하며 역동적인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넥슨은 체험전 개관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20일 개관일부터 22일까지 자녀 동반 부모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이후 매주 월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온 어머니 누구나 상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메이플스토리가 처음 서비스된 2003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주중 30%, 주말 10% 입장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소인 1만5000원, 대인 1만2000원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 MS, 신형 X박스 360 출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일 신형 X박스 360을 출시한다.

X박스 360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연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꼽힌다.

신형 X박스 360은 4GB 키넥트 패키지로 판매되며 권장 소비자가격은 39만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신형 4GB 키넥트 패키지를 5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다.



# 나도 축구단 키워볼까

### 모바일 축구 매니지먼트게임 브라질월드컵 앞두고 쏟아져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전후한 시기에 급지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2'를 서비스하던 네오위즈게임즈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 게임 하나로 네오위즈는 게임업계 빅 3로 도약했고, 이후 넥슨이 '피파3' 라이선스를 따면서 '피파2'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부동의 1위' 넥슨을 위협하는 강력한 추격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학습 효과 때문일까. '2014 브라질 월드컵'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축구게임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4년 전과 다른 점은 모바일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축구게임'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네오위즈게임즈는 '히딩크의 마스터리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했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초상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피프로(FIFPRO)와의 계약을 통해 유명 리그 선수의 실명과 사진을 적용했다. 여기에 인기 걸그룹 '헬로비너스'가 도우미로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게임은 전 세계 유명 선수를 모아 최고의 축구 관련 감독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방식이다. 높은 능력치를 가진 다양한 선수 카드를 획득하고 강화하며,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자신만의 스쿼드로 구성할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선보인 '풋볼데이'도 유사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실시간 게임 중계 시스템, '완성도 높은 선수카드' 등 '시뮬레이션'과 '카드 컬렉션' 기능을 접목한 콘텐츠가 차별화 요소다. 특히 프로축구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정지원 아나운서, 전 국가대표 송종국을 홍보도우미로 내세워 인기몰이 중이다.

조이시티의 '바코드 풋볼러' 역시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위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해 신규 선수를 영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선수 수집과 육성의 재미는 물론이고 선수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구단을 성장시켜 나가는 전략적인 재미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다.

EA의 '피파14'는 지난 9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에서만 다운로드 수 13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2013 구글 플레이 게임 어워즈'에서 '올해의 베스트 게임'에 이름을 올렸다.

유저가 직접 선수를 움직여 플레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플레이와 사실적인 그래픽이 장점이다. /박성훈기자 [illegible]

# 청소년 '게임 과몰입군' 중학생·특별시 비율 높아

초등학생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스마트폰 게임은 연령이 낮을수록 플레이 빈도가 잦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1~3학년 학생 총 12만2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휴대전화·비디오 등 게임 이용실태 과몰입에 대해 실시한 '2013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게임에 특화된 게임행동 종합 진단 척도'를 이용해 과몰입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시 게임 이외에 다른 과몰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급별 과몰입군 등장 차이]

[지역규모별 과몰입군등장 차이]

조사 결과 '과몰입군'은 2012년 0.8%에서 2013년 0.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몰입 위험군'은 2012년 1.2%, 2013년 1.2%로 변화가 없었다.

일반사용자군은 2012년 92.6%에서 2013년에는 92.2%로 감소했고, '게임선용군'은 2012년 5.4%에서 2013년 5.9%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과몰입군이 0.6%, 중학교 0.7%,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0.8%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과몰입군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과몰입위험군이 1.5%로 다른 학교급(초등학교 1.1%, 일반고 0.9%, 특성화고 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특별시의 과몰입군이 0.8%로 광역시 0.6%, 중소도시 0.7%, 읍·면지역 0.7%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해 초등학생 80.8%, 중학생 75.6%, 일반고 학생 59.1%, 특성화고 학생 70.6%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해, 특성화고를 제외하고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박성훈기자 zen@

## 게임업계 유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펑펑

게임업계가 푸짐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용자들을 찾아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풋볼데이'를 통해 루이비통 가방과 아이패드 에어를 획득할 수 있는 '메리 풋볼데이'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은 아이템 구매 수단 '블루베리' 10배 상승 행사를 벌인다. '에스티'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와 경험치 및 금화 획득 증가 아이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를 26일까지 개최한다. 이용자들은 '마법인형'과 '크리스마스 솔로 피티 초대장' 아이템을 각각 1개씩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전용 사냥터 '솔로 피티'에서 '외로운 루돌프'를 사냥하면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크리스마스 쿠키'를 받는다.

넥슨은 1인칭 총격게임 '서든어택'에 신규 맵 '스노우가든'을 추가한다. 신규 맵은 최대 8대8로 진영을 나누어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 내 주어지는 눈덩이와 근접 무기만을 이용해 지도 가운데 위치한 크리스마스트리를 일정 시간 이상 점령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이용자에게는 '징글벨' 특별 칭호를 부여한다.

자세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더 커진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14년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 2013년 12월 19일(목) 9시 ~ 2014년 1월 14일(화) 18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014년 1학기 신입생, 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

**상담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은?

# 칙칙폭폭! 뱀띠 해넘이·말띠 해돋이 출발

## 공항철도, 일출명소 거잠포행 용유임시역까지 연장운행 – 정서진·을왕리 일몰 감상도

2013년 계사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여행을 많이 계획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일대가 일몰 여행지로 꼽히는데 특히 공항철도 용유임시역이 있는 거잠포는 일몰뿐 아니라 신년 해맞이 여행객이 많이 찾는 일출 명소다. 더욱이 서울역~인천공항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를 타면 교통 체증없이 서해 일몰 및 일출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해 뜨고 지는 포구 '거잠포'**

공항철도 용유임시역 앞에 있는 작은 포구인 거잠포는 매랑도와 사렴도 두 개의 무인도가 색다른 풍광을 연출해주는 곳이다. 일몰과 일출 모두 아름다워 '해 뜨고 지는 포구'로 유명한데 무엇보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겨 '샤크섬'이라고 불리는 매랑도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에 공항철도는 내년 1월 1일 거잠포 해돋이 시간에 맞춰 해맞이 열차를 운행한다. 오전 6시1분과 10분에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공항역을 거쳐 용유임시역까지 연장 운행되며 귀가 열차는 오전 8시31분, 오전 9시1분에 출발한다.

**◆올해 마지막 날을 멋지게 장식할 정서진**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국토의 정서쪽에 있어 이름 붙여진 정서진은 영종대교 인근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위치해 있다. 영종도 주변 섬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이 특히 아름다우며 조약돌을 형상화한 조형물 '노을종' 속으로 지는 해넘이가 압권이다.

게다가 정서진에서는 계사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4시40분부터 8시20분까지 '정서진 해넘이 및 불꽃축제'가 열린다. 공항철도 검암역 앞에서 77-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행사 당일에는 오후 3시부터 역에서 행사장까지 20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색다른 매력의 해변들**

이와 함께 을왕리는 영종도 해변에서 가장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1.5km 길이의 해변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는 변산, 꽃지해변에 견줄 만큼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는 곳이다.

또 선녀바위 해변은 아담한 동산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해변으로 나뉘져 있는데 기암과 갯바위가 많아 색다른 매력을 안겨준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드라마 '꽃보다 남자', '아일', 영화 '고령화 가족' 등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등장한 적이 많으며 기도하는 여인 형상의 선녀바위 주변으로 펼쳐지는 낙조가 압권이다.

공항철도 용유임시역 및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용유역 앞에 있는 마시안 해변은 그 길이가 3km에 달하는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일몰이 장관이다.

이곳들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인천공항역에서 나와 인천공항 3층 2번 승강장에서 302, 306번 버스를 타면 이곳 해변을 모두 갈 수 있다.

문의: 1599-7788 /황재용기자

# 한입만 먹어도 속이 '든든'

## 겨울철 견과류 첨가식품 연말 다이어트에도 도움

식품업계가 계절적 특수를 노린 견과류 첨가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움직임이 적은 겨울에는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식욕 억제를 돕는 새로 토닌 분비를 증기시키는 견과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견과류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돼 있어 신진대사를 높여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뚜레쥬르는 최근 견과류가 들어 있는 '스마트브레드'를 출시했다. 흑임자를 섞어 반죽한 빵에 호두·호박씨 등이 들어간 필소를 넣어 다양한 견과류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호두와 호박씨·흑임자는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돼 학생들 영양 간식으로 인기다.

그래인팩토리의 '고소한 아침곡물'은 통곡물을 찌고 볶아 만든 시리얼에 견과류를 넣은 한국형 뮤슬리다. 아몬드·해바라기씨·호박씨 등을 넣어 포만감을 더욱 높였다.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 밸런스를 맞춰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가능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록나무의 '수제 미니 호두파이'는 두뇌 발달과 고혈압·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호두를 듬뿍 넣은 영양식으로 인기다. 아이들 간식에 맞게 100% 국산 밀을 사용하고 방부제와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

간편한 음료 타입으로 견과류를 활용한 제품도 눈에 띈다. 스무디킹은 바나나에 유청단백질, 지방분리에 포만감을 높여주는 아몬드를 첨가해 고른 영양 섭취가 가능한 '하이프로틴 아몬드 바나나 스무디'를 선보였다. 던킨도너츠도 검정콩·조·율무 등 12가지 곡물에 브랄린 시럽으로 고소한 맛과 든든함을 배가시킨 '더 고소한 시리얼라떼' 등을 한정 출시했다.

이 밖에 스타벅스 '토피 넛 라떼'와 모카 프랄린, 마노핀의 '토피 넛 라떼' 등도 견과류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겨울 음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곡물차에 호두·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더해 포만감을 높이면서 씹는 맛도 살린 티젠의 '호두 율무 아몬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해림기자

# 마시고 또 마셔도 홀~쭉하네!

## 뱃살 걱정 없는 저칼로리 맥주·취할 걱정 없는 무알코올 맥주 인기

송년회와 같은 연말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특히 '맥주를 마시면 뱃살이 는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술 중에서도 맥주를 비롯한 곡주의 칼로리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술 뱃살 걱정을 덜어줄 저칼로리 맥주, 무알코올 맥주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살찌까 부담되는 맥주, 저칼로리 맥주로 몸매 관리!**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의 열량은 100㎖ 기준 27㎉로, 일반 맥주보다 33% 낮아 칼로리에 민감한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 영하 4도의 온도에서 3일간 숙성하는 빙점숙성기법을 사용해 맛이 일반 맥주보다 상쾌하고 깔끔한 게 특징이다.

하이트맥주의 식이섬유 함유 맥주 '에스(S)'는 맥주에 남는 단수화물을 극소화하는 '고발효공법'을 이용해 일반 맥주 대비 칼로리를 3분의 1 더 낮춰 칼로리를 최소화했다. 또 저칼로리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을 깨고 목 넘김을 부드럽게 만들어 맛과 향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330㎖ 기준 1.65㎎이 함유돼 소비자들의 다이어트와 건강까지 고려했다.

수입 맥주 중에서는 '밀러 라이트'가 2030 젊은 여성층에게 꾸준히 인기있다. 207㎖ 밀러라이트 미니 병맥주의 경우 칼로리가 56㎉에 불과하며 단수화물은 1.87g만이 함유돼 있어 맥주를 좋아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제격이다.

**◆마셔도 취하지 않는 맥주도 있다? – 무알코올 맥주도 인기!**

여성들 사이에서 저칼로리 맥주와 함께 아예 마셔도 취하지 않는 무알코올 맥주도 인기다. 무알코올 맥주란 일반 맥주의 맛은 갖고 있되 알코올 함유량이 1% 미만인 맥주 풍미 음료다. 술이 약하거나 체질상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술자리의 부담을 줄여준다.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음료가 최초로 출시한 무알코올 맥주인 '하이트제로 0.00'은 알코올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순수 무알코올 음료로 주목받으며 출시 1년 만에 700만 캔 판매를 돌파했다.

이 제품은 '드라이 밀링(Dry Milling) 공법'으로 맥주의 시원한 청량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열량도 100㎖당 17㎉로 기존 탄산음료(탄산맥주)(40㎉)의 절반 이하로 낮다. 수입 맥주 가운데 무알코올 맥주로는 칭다오(중국), 밀러 맥스라이트(미국), 에딩거 프라이(독일), 오렌지붐(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정해림기자 rima@metroseoul.co.kr

# metro entertainment

# 대천해수욕장서 폭죽 팔던 꼬마 전국에 '폭소탄'

KBS2 개콘 '놈놈놈'·'댄수다' 개그우먼 **안소미**

한 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KBS2 '개그콘서트'의 '놈놈놈'과 '댄수다' 코너에 출연하며 데뷔 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개그우먼 안소미(25)는 "요즘 뭘 해도 즐거워요. 하하~"라고 말하며 행복 가득한 눈빛을 드러냈다. '대세 열풍' 개그우먼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금의 인기를 얻기까지 안소미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주체할 수 없는 끼**

안소미는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19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BS 23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다양한 끼와 잠이다. 충남 보령 대천동에서 자란 안소미는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폭죽 장사를 했는데 워낙 물건을 잘 팔아서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관광지라는 이점을 살려 대천해수욕장 축제에서 인기상도 독차지했다. 받은 상품은 자주 찾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릴 적 대천해수욕장에서 유명인이었던 안소미는 고교 졸업 후 한화리조트에서 전문 MC로 활동했으며 밸리댄스나 난타 등 공연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바로 '트로트 가수'였다.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어요. 주변에서 가수 데뷔하려면 인맥과 돈이 있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놔서 오디션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도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해서 고교 졸업 후 개그콘서트 공채 오디션을 봤죠. 댄스와 성대모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는데 운 좋게 합격했어요."

**◆고난과 시련**

춤·노래 등 주체할 수 없는 끼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도 힘든 시절은 있었다. 류근지·이안나·김성원 등과 동기인 안소미는 데뷔 후 '슈퍼스타 KBS' '그건 그렇지' '위대한 유산' 등 여러 코너에 출연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리지 못했고 결국 '놈놈놈' 전까지 1년 동안 코너 없이 쉬어야 했다.

안소미가 개그우먼으로서 차별화된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가 출연 중인 KBS2 '개그콘서트'의 '놈놈놈'(위)과 '댄수다'(아래).

**원래 트로트가수 꿈꾸다 댄스·성대모사 필살기로 196대1 '개콘' 공채 합격 일년간 코너 없어 '백수' 생계 어려워 딴 길 생각도 내 롤모델은 유재석 선배**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했다고 간혹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서 뭘도 할 수 없었다. 생계도 그렇고 정말 답답했다"며 "개그맨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활동 중단과 생계 문제로 우울증을 겪을 법도 하지만 그는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할머니와 자주 통화하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1년이란 기다림 끝에 '놈놈놈'이 찾아왔다. 그는 "1년 정도 쉬고 있는데 박현규·송왕근·유인석 등이 '선배, 코너 검사 받아주세요'라며 날 불러줬다"며 "너무 기뻤지만 초반에 순탄치만은 않았다. 3주간 녹화를 했지만 편집되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4주차 방송부터 빵 터졌다"고 활짝 웃었다.

잘생긴 남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덕에 여자 시청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다. 그는 "정말 좋근할 때 저희 모습을 보셔야 한다"며 "방송은 저나 그 친구들이나 좋세당한 상대다. 실제로는 스킨십하는 장면에서 서로 얼굴 보며 웃음보가 터질 정도다"고 말했다.

'놈놈놈'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린 안소미는 '댄수다'에서 숨겨둔 끼를 무한 발산하고 있다. 그는 "무용 전공자가 아니라서 매주 짜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아이돌 댄스는 알려주거나 안무를 직접 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코너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그는 "타이트한 의상으로 캣우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도 행복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재석 선배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정은기자 yjw@metroseoul.co.kr·사진/손진영기자 디자인/박은지

# 놀 줄 몰라? 오빠만 믿어봐!

## 이승철·싸이·박진영…연말 공연가 '느낌 아는' 실력파 톱가수 총출동

싸이

박진영

이승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공연가가 톱 가수들의 향연 함성으로 뒤덮인다. 콘서트 시장에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아 막강한 티켓 파워를 지닌 가수들의 자존심 경쟁이 화려한 쇼와 함께 펼쳐진다.

◆심사위원의 명불허전 무대

엠넷 '슈퍼스타K'를 이끌어온 이승철은 올해도 '라이브의 황제'에 걸맞은 무대를 선사한다. 20~22·24일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캐럴라인'을 개최한다. 매년 전국투어에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펼쳐온 이승철은 이번 공연에서 히트곡들과 캐럴은 물론 올해 발표한 정규 11집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그는 직접 티켓 추첨을 통해 새해 개별 만남을 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도 뽑는다. 엠넷 '슈퍼스타K 5'로 인연을 맺은 네이브로가 게스트로 출연해 캐럴 무대로 방송 이후 처음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SBS 'K팝스타 3'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박진영은 19~22일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나쁜파티-더 하프타임 쇼'로 어른들만의 화끈한 놀이터를 마련한다. 매년 차별화된 19금 공연을 열어온 박진영은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을 무대에 쏟아낸다. 최근 JTBC '히든싱어'에 출연한 이후 '날 떠나지마' '허니' '썸머 징글벨' '너의 뒤에서' 등 과거 히트곡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슈퍼스타K' 심사위원 출신인 월드스타 싸이는 20~22·2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오랜만에 국내 무대를 연다. '관객을 쉽게 보내주지 않는 가수'로 악명(?) 높은 싸이가 이번에 내세운 '올나잇 스탠드 2013-달밤에 체조'라는 타이틀부터 예사롭지 않다. 24일에는 2회 공연을 하며 총 5회 공연을 열어 총 6만 명의 관객과 광란의 파티를 벌인다.

◆하나만 보긴 아쉬운 겨울밤

실력파 가수들의 합동 공연은 다양한 즐거움을 준다.

'2013 조관우·임정희가 꿈꾸는 크리스마스'가 21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와 '솔(soul) 티바'의 이색 만남이 명품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 힙합계를 쥐어잡은 아이돌 그룹 블락비와 M.I.B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2013 더 베스터'를 개최한다. 이들은 젊음의 패기와 실력으로 올해 흥행 불패를 이어온 합동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힙합과 레게의 만남을 만끽할 수 있는 리쌍·스컬&하하·정인의 '더 놀자'는 24일 오후 7시30분, 실력파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로맨틱 펀치가 꾸미는 '브레이크타임 인 크리스마스'는 24일 오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윤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데스노트' 책·영화 이어 뮤지컬로 흥행 쏜다

## 한·미·일 합작…내년 4월 日 이어 7월 서울 공연

전 세계 누적 발행 3000만 부를 기록한 일본 인기 만화 '데스노트'가 영화에 이어 뮤지컬로 탄생된다.

뮤지컬 '데스노트'가 내년 4월 도쿄 닛세이 극장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어 5월 오사카 우메다 예술극장을 거쳐 7~8월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이 뮤지컬은 한·미·일이 뭉친 아시아 프로젝트라는 점이 특징이다. 뮤지컬해븐과 일본 프로덕션인 호리프로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지킬 앤 하이드' '몬테크리스토' 등으로 국내 관객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참여한다.

연출은 일본 공연계를 대표하는 거장 쿠리야마 타미야가 맡아 '죽음의 노트'·'사신' 등 원작 만화의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무대로 옮겨온다. 그는 국내에서도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 뮤지컬 '쓰릴 미'의 연출로 참여해 호평받은 바 있다.

'데스노트'는 2003년부터 슈에이샤의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된 만화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히트작이다. 2006년에는 영화로도 개봉돼 흥행을 거뒀고, 그 인기는 일본을 넘어 한국·홍콩·대만 등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다.

뮤지컬해븐은 "호리프로와는 뮤지컬 '쓰릴 미'에 이은 두 번째 협업이다. 뮤지컬해븐은 2011년부터 '쓰릴 미'를 필두로 일본에서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다"면서 "'데스노트'는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이루나아가 세계시장에서 우뚝 서는 콘텐츠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 '데스노트'의 한 장면

/채신화기자 csh0427@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의 규현(왼쪽)과 서현.

### 뮤지컬 '해품달' 서울 컴백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이 일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다.

13~15일까지 일본 동경 아오야마극장에서 공연되며 전석 매진의 성과를 거둔 이 뮤지컬은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와 내년 1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재공연된다.

동명의 소설이 원작으로 지난해 드라마로도 방영돼 신드롬을 일으킨 '해를 품은 달'은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액받이 무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뮤지컬은 현대무용과 전통무용이 어우러진 안무, 한국적인 미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색채들로 구성된 무대·조명·의상·영상이 특징이다.

지난해 7월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됐으며, 그해 10월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다인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작곡상(원미솔)과 남우신인상(전동석)을 수상했다.

두 번째 서울 공연에는 슈퍼주니어의 규현과 소녀시대 서현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 김다현·전동석·강필석·조휘·린아·정재은이 출연한다. 문의 1588-5212

/박준원기자

# 충무아트홀 무대서 '프랑켄슈타인' 재탄생

## 내년 개관 1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로 선보여

충무아트홀이 내년 개관 10년을 기념해 대형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선보인다.

충무아트홀이 직접 기획·제작한 이 뮤지컬은 내년 3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초연된다.

그동안 수많은 공포영화와 SF영화의 소재가 된 프랑켄슈타인은 이번 뮤지컬에서는 실제로 존재할 법한 이야기를 지닌 스릴러 장르로 재탄생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참혹한 전쟁을 배경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 '인간을 동경했던 괴물'로 그려진다.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유준상·류정한·이건명이 맡고, 빅터의 조력자인 앙리 뒤프레는 박은태와 한지상이 연기한다. 이 밖에 리사·안시하·이희정·서지영·안유진·김대종 등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한다.

충무아트홀은 "'프랑켄슈타인'은 국내 공연 후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면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공연 가능한 뮤지컬로 개발해 해당 콘텐츠를 다시 민간 제작사에 보급하는 방식으로써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무아트홀은 이 밖에도 내년 뮤지컬 '살짝인디레인' '스위니토드' '킨키부츠' 등 대작 뮤지컬을 여러 편 선보일 예정이다. /채신화기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유준상·[illegible]과 박은태.

star bag

## '가왕'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가왕 **조용필**이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3년을 빛낸 가수 1위에 선정됐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7~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만 13~59세 남녀 42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활동한 가수 중 좋아하는 가수를 세 명까지 응답받은 결과 조용필이 17.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조용필은 4월 10년 만의 정규앨범 19집 '헬로'를 발표해 신드롬을 일으켰다. 2~4위는 싸이, 장윤정, 엑소 순이었다.

## 中서 '해외 최고 인기스타상'

배우 김우빈과 **박신혜**가 중국에서 '해외 최고 인기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최근 종영한 SBS '상속자들'에 함께 출연한 이들은 18일 오후 열린 안후이 위성의 '2013 TV 드라마 어워즈'에서 이 상의 남녀 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신혜는 이 자리에서 '상속자들' OST 중 자신의 테마곡 '스토리'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박신혜는 19일 중국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한 뒤 20일 일본으로 가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 사랑이 손잡고 연예대상에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가족과 '2013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성훈과 그의 아내 야노 시호, 딸 **추사랑**은 이번 시상식에서 모바일TV 인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위해 추성훈은 딸과 함께 시상식 전날인 20일, 야노 시호는 21일 각각 입국한다.

## 23일 도쿄서 첫 일본 팬미팅

밴드 부활의 보컬 **정동하**가 23일 도쿄의 일본교육회관에서 첫 일본 팬미팅을 개최한다.

부활은 7월 도쿄에서 첫 일본 공연 '부활 파워 웨이브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KBS2 '불후의 명곡'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한 정동하는 일본에서 뮤지컬 공연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그는 다음달 11일 8년간 교제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 걸그룹 컴백전쟁 '뜨거운 1월'

### 소녀시대·걸스데이·달샤벳 줄줄이 신보 … 비·신인 보이그룹들도 출격

2013년 못지않게 내년 초부터 가요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와 군동령 걸스데이·에이핑크 등 비롯해 보이그룹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4년 만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는 가수 비까지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된다.

◆ **걸그룹 섹시미 총무장**

내년 1월 인기 걸그룹이 대거 컴백을 앞두고 있다. 올겨울 풋풋한 매력을 앞세웠던 걸그룹과 달리 섹시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걸스데이(민아·소진·유라·혜리)는 1월 첫째 주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미니앨범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걸스데이는 6월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여자 대통령'의 타이틀곡 '여자 대통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7월 말에는 여름을 겨냥한 싱글 '말해줘요'를 발표했다. 올해 '노노노'로 주목받았던 에이핑크도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달샤벳 역시 비슷한 시기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달샤벳은 1월 둘째 주 컴백 날짜를 확정하고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고급스러운 섹시미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뮤직비디오와 재킷 촬영만 남겨뒀다.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신선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달샤벳은 2011년 1월 '슈퍼 두퍼 디바'로 데뷔했다. 지난해 '블링블링'을, 올해는 '미스터 뱅뱅' '있기 없기' '내 다리를 봐' 등을 발매하며 주목받았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팀은 소녀시대다. 전통적으로 1월에 초강세를 보였던 소녀시대는 올해도 가선세약을 노린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새 앨범 콘셉트에 대해 비밀로 부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보이그룹 대거 출격**

대형 기획사들의 신인 그룹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위너, JYP엔터테인먼트의 파이브라이브, FNC엔터테인먼트의 엔플라잉이다.

10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 후 이즈 넥스트'를 통해 실력을 공개했던 위너는 13일 시작된 '위너 TV'를 통해 타이틀곡 녹음 현장을 공개하며 데뷔 초읽기에 들어갔다.

JYP엔터테인먼트가 2PM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남성그룹 파이브라이브는 KBS2 수목극 '예쁜남자' OST '러블리 걸'을 발표하며 매력을 드러냈다. 엔플라잉은 소속사를 배경으로 한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청담동111'에서 서서히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신예들의 공세 속에 월드스타 비의 화려한 컴백은 내년 초 가요계 최대 이슈다. 2010년 '백 두 더 베이직' 이후 4년 만인 1월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한다. 비는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방송 무대에도 나선다.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유순호기자 ysw@metroseoul.co.kr

소녀시대

달샤벳

# 누명 벗은 이다해·조혜련

**검찰 '연예인 성매매' 수사**
**"문제된 찌라시 내용 허위"**
**12명 기소하고 사건 종결**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증권가 정보지에 당사자로 지목됐던 여성 연예인들이 의혹을 벗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그동안 증권가 정보지와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고 여배우 2명은 조사 대상이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성매매 브로커인 남성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A씨와 성매매 여성 9명,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2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여성 대부분은 방송이나 영화에 잠시 출연한 경력이 있는 연예인 지망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자 명단에 미스코리아 출신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여성들은 한 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 수사 리스트에 올랐다며 증권가 정보지에 언급된 조혜련·황수정·이다해(사진)·장미인애·신지·솔비·김사랑·권민중 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를 찾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선영기자

# 유명 연예인들 디스크 고주파로 치료 끝!

## 초기는 도수 운동 치료 – 중기 이후는 10분정도 고주파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사진 왼쪽)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대 후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방송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의지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오른쪽) 병원장은 휘성의 상태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국소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치료 후 탈출된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됐으며 휘성은 회복 후 당일 퇴원했다.

현재 휘성은 방송 활동에 복귀했으며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 휘성에 이어 배우 윤계상도 비슷한 증상으로 강남초이스병원을 방문해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았으며 가수 김종국, 배우 이광수, 가수 겸 배우 알렉스, 가수 개리, 개그맨 지석진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고주파로 디스크 질환을 완치한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인 치료로 유명해진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강남초이스병원이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치료법으로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특히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현대인의 고질병, 목·허리 통증 치료는 이제는 간단하게**

이런 허리나 목 통증은 연예인만의 얘기가 아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으로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 지금까지 선뜻 믿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절개 신경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 치료 등에 의존해왔다.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사수 싶는 척추관절 선뜻 치료병원으로 일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이런 환자들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차단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여러 가지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질환, 나이·증상에 따라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한 명을 전담해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돕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 환자는 강남초이스병원에서 맞춤형 도수·감압·운동 치료를 받는데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는 치료다. 또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키는 치료이며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02)875-2200 /황재용 기자

# Choo, 얼마면 되겠니?

### 야후스포츠 "양키스 7년 1억4000만 달러 제안 거절…수수께끼 같은 상황"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추신수(31·사진)가 뉴욕 양키스의 7년 1억4000만 달러(약 1474억원) 제안마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9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추신수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가 양키스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양키스는 제안을 철회하고 카를로스 벨트란과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칼럼니스트 제프 파산은 '추신수는 FA 시장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키스 사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라스가 양키스에 이른바 '엘즈버리 머니'를 원했다"고 전했다.

빠른 발과 폭넓은 수비를 자랑하는 외야수 자코비 엘즈버리는 '보라스 사단'의 대표 선수로 7년간 1억5300만 달러(약 1610억원)에 양키스와 계약했다. 이로써 추신수와 보라스가 원하는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드러났다.

◆"엘즈버리 수준 원하는듯"

그러나 추신수가 뛰기를 원하는 우승 근접 구단 중 양키스는 가장 명문 구단이라 이를 거절한 것은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이라고 야후스포츠는 설명했다.

앞서 텍사스 레인저스는 7년 1억30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고, ESPN 칼럼니스트 짐 보든은 6년 1억2000만 달러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역시 보라스의 기준과는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양키스의 제안에도 밑돌아 추신수의 계약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추신수 영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가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 영입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 보라스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야후스포츠는 추신수를 원하는 팀으로 팀 재건에 나선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기성용 "첼시 다음은 맨유"

### 리그컵 4강 상대로 확정

첼시 FC를 침몰시킨 '영웅'으로 떠오른 기성용(24·선덜랜드 AFC·사진)이 리그컵 4강에서 또 다른 명문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상대한다.

맨유는 19일 영국 스토크온트렌트의 브리태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시티 FC와의 2013~2014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애슐리 영과 파트리스 에브라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어느새 맨유는 전날 기성용의 극적인 결승골로 준결승에 선착한 선덜랜드와 내년 1월 8일과 21일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맨유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인 가가와 신지가 속해있어 한·일 선수간의 자존심 대결은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맨유는 8일과 11일 홈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는 등 홈 팬들의 원성을 샀지만 최근 3연승을 거두며 부진에서 탈출했다.

2009~2010시즌 리그컵 정상에 오른 맨유는 4시즌 만에 통산 다섯번째 우승을 노린다. 또 다른 결승행 티켓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경기의 승자에게 돌아간다.

/유순호기자

"에브라 오랜만이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파트리스 에브라(왼쪽)가 18일 영국 스토크온트렌트 브리태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시티 FC와의 2013~2014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2-0 승리를 확정 짓는 추가골을 터트리고 있다. /AP·연합뉴스

# 손흥민 "류승우, 레버쿠젠 잘 왔어"

독일 프로축구 바이엘 레버쿠젠이 새로 임대한 류승우(20)에게 큰 기대를 나타냈다.

18일(현지시간) 레버쿠젠은 류승우가 팀의 간판스타인 손흥민(21)과 만나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레버쿠젠의 새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류승우가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고 내년 1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전지훈련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류승우와 같은 국적 선수인 손흥민은 언어와 팀 내 적응 등의 문제에서 류승우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레버쿠젠 홈페이지

류승우는 7월 열린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2골을 넣어 한국의 8강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독일과 스페인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K리그를 먼저 경험하겠다며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했고 레버쿠젠으로 1년간 임대됐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9일

| | | | | | |
|---|---|---|---|---|---|
| 우리은행 | 22 | 21 | 14 | 8 | 65 |
| 삼성생명 | 16 | 16 | 16 | 11 | 59 |

**프로배구 전적** 19일

| | | | |
|---|---|---|---|
| 흥국생명 | 3 | 2 | 도로공사 |
| 손해보험 | 3 | 1 | 대한항공 |

#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 무려 35억

### 1억원 채 안되는 한국의 37배…일본 프로야구보다도 9배 많아

미국프로야구의 평균 연봉이 매년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39만 달러(약 35억6000만원)로 집계됐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노조가 공개한 연봉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균 연봉은 지난해보다 5.4% 상승했고, 상승폭은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 평균 연봉의 37배, 일본의 9배 수준이다.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올해 평균 연봉은 각각 9496만원과 3734만 엔(약 3억8000만원)이다.

7년간 1억53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최근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자코비 엘즈버리(왼쪽)가 조 지라디 감독과 환하게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스는 올해 817만 달러(약 86억원)로 15년 연속 최고 연봉 구단 자리를 지켰다. 2위는 LA 다저스로 평균 782만 달러(약 82억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553만 달러(약 58억2000만원)로 3위,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보스턴 레드삭스가 546만 달러(약 57억4000만원)로 4위를 기록했다. 최저 연봉 구단은 평균 94만8603달러(약 9억8000만원)를 쓴 휴스턴 애스트로스다.

포지션별로는 지명타자가 1050만 달러(약 110억5000만원)로 최고 연봉을 받아 '한방'이 있는 선수들이 후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1루수(65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선발 투수는 630만 달러로 포지션별 3위에 올랐고, 포수(440만 달러)와 불펜 투수(220만 달러)가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포지션으로 집계됐다.

/유순호기자

## metro HongKong

# 腳一月後

## metro Sweden

### "또래보다 크다고 유료입장 명백한 차별"

또래에 비해 유달리 키가 큰 아이의 어머니가 스웨덴의 대표 놀이공원 리세베리(Liseberg)를 차별 옴부즈맨 DO(차별에 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어머니는 키 110cm 미만의 아이들은 리세베리 놀이공원 입장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아이는 유독 키가 큰 탓에 당연히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같은 나이임에도 키가 크다는 이유로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이 어머니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가 리세베리 놀이공원을 차별 옴부즈맨에 신고한 사유였다고 스웨덴 라디오 채널 P4 예테보리는 전했다.

## metro France

### '여보세요-시장님'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2013 프랑스 공공 서비스 시상식에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의견을 보내는 시스템 '여보세요-시장님(Allo-mair.com)'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시청의 소속 산업부 장관 아르노 몽트부르의 후원 아래 완성됐다. 서비스를 기획한 회사 창업자 크노 프로베르는 "이 서비스는 처음엔 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베르 사장은 "접수를 받으면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해 사건·사고가 난 경우 대처에 쓰이니다"고 밝혔다.

## metro Russia

### 사진·동영상에 홀로그램까지 백설공주 총출동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백설공주 전시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극 영화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백설공주를 테마로 한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 총괄 기획자 카짜 보지베르는 "이번 전시회는 강인하면서도 아름답고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누구나 잘 아는 백설공주를 통해 표현했다"며 "상상 속 백설공주의 모습을 작가의 생각을 바탕으로 현실화시키는 데 초점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양한 백설공주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연극의 한 장면을 본떠 눈 내리는 배경 속에 러시아 인기 여배우 안나 리트겐스의 홀로그램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실제 백설공주가 서 있는 줄 알았다" "백설공주 유령인 줄 알았다" 등의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보지베르는 "아직은 리트겐스의 홀로그램이 아무 말 없이 관람객을 바라보며 서 있지만 앞으로는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백설공주 소설을 읽어줄 것"이라며 "환상적 느낌이 가득한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년간 공연했던 백설공주의 포스터는 물론 1952년과 68년에 제작된 백설공주 영화도 볼 수 있다. /정리=이국명기자

# 잘린 손 종아리에 붙여 재생

## 중국 의료진, 복원 후 1주일 만에 접합수술 성공 ·감각·기능 회복 위해 재활훈련 시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된 손을 다리에서 '길러' 복원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중난(中南)대학 샹야(湘雅)의원에서 이 수술을 완벽하게 성공시켜 화제다.

후난성 창더(常德)시에 사는 장웨이(가명·25 사진)는 한 달 전쯤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팔이 말려 들어가 순식간에 오른쪽 손이 절단됐다. 그는 바로 현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료진은 "오른손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웨이는 손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 손이 없으면 평생 불편한 몸으로 '반쪽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고 7시간 만에 샹야의원을 찾았다.

샹야의원 미세재건 전문의 탕쥐위(唐舉玉) 교수는 환자의 오른손이 단순히 절단된 것뿐만 아니라 압착되며 웅그러져 넓은 면적의 피부조직과 혈관, 신경, 힘줄이 손상돼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발견했다. 절단 사고 중에서도 복원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속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웨이의 오른손과 손목 관절이 파손되지 않아 희망이 있었다.

탕 교수는 절단 부위의 조직을 제거한 후 종아리에 이식을 시키고, 그 부위가 재생되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후에 다시 제자리로 원상 복구시키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겨우 30분 정도의 수술로 전문의들은 성공적으로 손을 종아리에서 자라게 했다.

지난 4일 탕 교수팀은 다리에서 한 달가량 자란 손을 다시 오른쪽 팔에 이식했다. 수술 1주일 뒤 이식한 오른손과 피부가 모두 자리를 잡았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다. 장웨이는 바라더면 잃을 뻔했던 오른손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탕 교수는 "절단 부위 혈액순환 회복, 조직 손실 회복, 기능 회복이 이식수술 성공의 3대 요소"라며 "이식한 손의 감각과 기능이 의수보다 뛰어나야 목표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활훈련과 기능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마지 집을 짓는 것처럼 건물 뼈대를 완성시킨 후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리=이국명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566-7979

# 설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엄마, 나 러시앤캐시 합격했어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은행이나 카드회사랑 하는 일은 비슷해
대신, 이자가 비싼 만큼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아직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다녀보니까 좀 좋아지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구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

**역시!** Rush & Cash 1566-7979